

“체육인의, 체육인에 의한, 체육인을 위한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당선인

전갑수(62) 광주시체육회장 당선인이 민선 3기 광주시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광주 체육계가 전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지난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자 365명 중 231명이 그를 지지했다.

내년 2월 취임하는 전 회장은 26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체육인의, 체육인에 의한, 체육인을 위한 광주시체육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체육인의 화합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광주체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대립 관계를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립이 지속되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화합의 한 방안으로 집행부를 구성할 때 이번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님들께도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철저히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체육회를 운영할 것이다.

-소외·비인기 종목 활성화 목소리가 높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종목 구분없이 취미 종목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다. 회장과 광주시장이 대회가 없는 종목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확대해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다. 취임 즉시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타 시도체육회장들에게 학교체육 전문체육 활성화 대책 마련 논의를 제안할 생각이다. 생활체육 운동시설 및 공간 확보를 위해 광주시, 5개 자치단체, 교육청과도 협의

비인기 취미 종목 지원 확대
 체육인 화합 위해 총력 쏟겠다
 체육회 법적 지위 보장 받아
 안정적 재원 확보 구조 만들겠다
 전국체전 전남 개최 최대 협조
 광주 좋은 성적 내기에 최선을

시작할 것이다.

-신임 회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조직, 단체를 이끄는 리더는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가 총동원하기 때문이다. 시체육회도 마찬가지다.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분야별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선수와 지도자, 육성팀 대표(운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체육계 여러 목소리가 서로 서로 이해되고, 배려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어떤 공약을 우선순위에 두나
 ▲공약은 선거과정에서 많은 체육인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만들었다. 모두 체육인들의 소망이자 광주체육 발전을 위한 현안이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우선 순위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혼자 할 수도 없다. 다만 체육회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것은 취임과 함께 곧바로 논

의하고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체육회 예산 확보 방안은
 ▲광주시체육회 예산은 사실상 광주시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고 있다. 체육을 정치와 독립시키기 위해 민선 회장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및 예산 문제로 자치단체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재임 중 광주시체육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해 광주시체육회도 대한체육회처럼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 나가겠다. 시체육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스포츠마케팅 전담부서’ 신설도 염두에 두고 있다.

-104회 전국체전이 전남에서 열린다
 ▲광주에서는 양궁 경기가 분산 개최되는데 전국에서 온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전국체전은 개최지 지점이 많은 대회여서 전남이 시도종합순위에서 상위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도 좋은 성적을 내서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장으로서 남기고 싶은 유산은
 ▲초등학교때 처음 배구공을 만졌고 지도자, 체육행정가로서 봉사하며 50년간 한 길을 걸어왔다. 체육인으로서 항상 잊지 않은 게 있다.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체육회장으로서도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일할 생각이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광주 체육계에 꼭 정착시키고 싶다. 체육인들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광주체육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이다. 체육인, 시민들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KBO 코치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지난 23일 3주간의 교육이 끝난 뒤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KBO 제공)

‘2022년 KBO 코치 아카데미’ 마무리 KIA, 이상화·박효일·박태원·이해창 참가

“좋은 것, 생각만 했던 것, 몰랐던 것 많이 알게 됐다.”

KBO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2022년 KBO 코치 아카데미’가 3주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0년 시작돼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번 아카데미에는 총 26명의 프로 코치가 참가해 지난 5일부터 용인 드림파크 연수원에서 23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됐다.

KIA에서는 퓨처스 선수단을 맡은 이상화 투수 코치, 박효일 주루코치, 박태원 타격코치, 이해창 배터리 코치가 참가했다.

참가 코치들은 야구 기술 강의는 물론, 데이터 활용, 운동역학, 스포츠과학, 부정방지 등 총 26개 과목을 90시간 동안 수강했다.

야구 지도자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간을 보낸

이들은 마지막날 열린 평가시험에서도 전원 통과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한화 박승민 코치의 투구·승구 영역 강의는 투수 성향을 이해하고 경험으로 알던 지식을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던 강의로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종열 해설위원의 타격 강의도 바이오메카닉스 관점에서 타격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로 호응이 높았다.

이외에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강조한 허재혁 강사의 야구 영양학과 피로먼스,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 대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황윤석 강사의 응급처치, 권병희 강사의 코칭 및 커뮤니케이션 강의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카데미에 참가한 이상화 코치는 “바이오메카

닉스와 스포츠 과학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 선수들과의 언어법, 어떻게 다가 가야 하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다양하게 교육을 받았다. 법, 컴퓨터,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 등도 배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KIA가 내년 시즌 손승락 퓨처스 감독 체제로 새 판을 짜게 된 만큼 이번 강의가 새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코치는 “손승락 감독의 이야기처럼 퓨처스는 새로운 시스템, 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선수들이 편하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코치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선수들에 와서 물어보게 하는 것이다”며 “코치들은 선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트레이닝 강화를 하던가 보완을 하게 해서 장점을 끌어올려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 선수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고종욱·남하준 내년 1월 나란히 결혼

이인행 스카우트도 ‘새신랑’

KIA 타이거즈 외야수 고종욱(33)과 투수 남하준(26)이 내년 1월 7일 나란히 결혼식을 올린다.

고종욱은 오전 11시 30분 서울 테라움4층 체임버홀에서 신부 서너름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고종욱은 지인의 소개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서씨를 만나 2년 열애 끝에 식을 올리게 됐다.

고종욱은 “아내가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덕분에

에 큰 힘을 얻었다.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아내를 위해 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종욱은 내년 시즌이 끝나면 이탈리아 로마로 신혼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남하준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광주 위더스 웨딩홀1층 메리엘 홀에서 이이슬(24)씨와 화촉을 밝힌다.

KIA 응원단 치어리더로 활약한 이씨와 2019년부터 친구로 지냈던 남하준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남하준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아내에게 고맙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월 15일에는 이인행(31) 스카우트가 ‘새신랑’이 된다.

이 스카우트는 오전 11시 20분 서울 테라움 여의도 B1층 그랜드컨벤션홀에서 신부 박민화(31)씨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이 스카우트는 지인의 소개로 신부를 만나 1년간 연애를 한 뒤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이인행-박민화 커플은 몰디브로 9일 간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손흥민, IFHHS 올해의 최우수 감독·선수 후보 선정

한국 축구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과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국제축구연맹(IFHHS) 선정 올해의 최우수 감독과 선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벤투 감독은 IFHHS가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로 발표한 2022 남자 국가대표팀 최우수 감독 후보 20명에 포함됐다.

IFHHS는 매년 최고의 국가대표팀 감독과 클럽 감독, 선수 등을 선정하는데, 그에 앞서 후보를 겸한 ‘톱20’이 먼저 발표됐다.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인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 준우승팀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 감독 등과 함께 20명 안에 들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국가의 대표팀 사령탑으로는 벤투 감독을 비롯해 그레이엄 아널드 호주 감독,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감독, 에르베 르나르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이 뽑혔다.

앞서 발표된 올해의 남자 최우수 선수 후보 20인에는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손흥민은 올해 5월까지 열린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무함마드 살라흐(이집트·리버풀)와 공동 득점왕(23골)을 차지했고,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월드컵 본선행과 16강 진출에 앞장섰다.



벤투 손흥민

남자 최우수 선수 후보로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파리 생제르맹), 킬리안 음바페(프랑스·파리 생제르맹), 카림 벤제마(프랑스·레알 마드리드), 앨런 홀란(노르웨이·맨체스터 시티), 해리 케인(잉글랜드·토트넘), 살라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남자 최우수 선수는 지난 2년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바르셀로나)에게 돌아간 바 있다. 레반도프스키 역시 올해도 후보로 선정됐다.

대표팀의 수문장 김승규(알사바브)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아르헨티나·에스턴 빌라), 위고 로리스(프랑스·토트넘), 알리송(브라질·리버풀), 야신 부누(모로코·세비야), 콘다 슈이치(일본·시미즈) 등과 올해의 남자 최우수 골키퍼 후보 25명에 들었다. 각 부문 수상자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이다.

/연합뉴스

올버햄프턴, 브라질 공격수 쿠냐 영입 ... 황희찬 입지 ‘흔들’

한국 국가대표 황희찬(26)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올버햄프턴 원더러스가 브라질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23·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임대 영입했다.

올버햄프턴은 26일 “쿠냐는 올버햄프턴 감독의 올버햄프턴 사령탑으로서 첫 번째 영입 선수가 될 것”이라면서 “쿠냐는 취업허가(워크 퍼밋)를 받으면 내년 1월 1일 팀에 임대선수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단에 따르면 쿠냐는 지난주 초 영국에서 메디

컬 테스트를 받았고, 임대 기간 후 특정 조항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2027년까지 완전 이적 계약을 하게 된다.

황희찬은 “쿠냐는 곤살루 케드스, 디에고 코스타에 이어 또 다른 경쟁자가 생겨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쿠냐도 황희찬처럼 최전방과 2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공격수다. 왕성한 활동량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이 장점으로 꼽히며, 탈압박과 드리블 돌파 등 기술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광주FC, ‘테크니션’ 공격수 신창무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화력 강화를 위해 ‘테크니션’ 공격수 신창무(30·사진)를 영입했다.

대구FC와 강원FC 등에서 맹활약한 측면 공격수 신창무는 프로 9년 차로 170cm·70kg의 날렵한 체격과 함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과 개인기, 정확한 크로스가 강점으로 꼽힌다.

날카로운 원발킥으로 세트피스를 전담하고 있는 그는 중앙 미드필더와 좌우 측면 수비까지 소화할 수 있다.

대구 U-18 현풍고와 우석대를 거쳐 2014시즌 대구 유니폼을 입은 신창무는 프로 첫해 12경기 1도움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16시즌에는 주전으로 1부리그 승격에 기여했으며, 2019년 상주 상무에서 전역한 후 팀의 창단 첫 파이널 A 진출에도 역할을 했다.



2021시즌 강원대에 합류한 그는 2년간 팀의 K리그 1 잔류와 파이널 A 확정을 이끌면서 K리그 통산 163경기 7골 5도움을 기록했다.

신창무는 “진도가 외가라 광주·전남 지역에 맹목적인 추억이 많다. 광주에서 더 좋은 기억을 만들어가고 싶다”며 “K리그2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이기에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 베테랑답게 팀에 헌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